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

김 정 현 김 지 현[†] 김 준 영

홍익대학교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사관 299명, 병사 299명의 1:1 대응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상관 및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하였다(TLI=.910, CFI=.924, RMSEA=.079, SRMR=.062). 그 결과,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으며, 이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유의한 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연구결과는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켜 성역할 갈등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고,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주요어 :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성역할 갈등, 병사의 군 생활 적응

* 본 연구는 김정현(2018)의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 개발 및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 중 일부를 발췌, 수정한 내용임.

† 교신저자 : 김지현, 홍익대학교 교육학과,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94

Tel: 02-320-1856, E-mail: mongsanga@hongik.ac.kr

부사관은 병영생활의 핵심관리자로 전시는 물론 평시에도 최일선에서 병사들을 지휘하는 리더의 역할을 한다(육군부사관학교, 2015). 군에서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는 간부는 부하들의 욕구, 기대, 태도를 이해하고, 조직의 기대가 반영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정영용, 2001).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을 가장 근거리에서 관찰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간부가 부사관이다.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서는 부사관의 리더십 역량이 강조되는데, 군에서의 리더십 연구들은 대부분 장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부사관 관련 연구는 찾기 어렵다. 리더십 개발 투자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리더들은 일선 조직원들과 대면접촉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층이라는(최병순, 2008) 점을 고려할 때, 부사관 대상의 리더십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야 한다.

의무 입대한 20대 초반의 병사들은 개성을 중요시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추구하는 신세대들의 성격특성을 가지고 있어 군대라는 획일화되고 통제된 집단생활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김옥란, 김완일, 2014). 특히 육군의 경우, 직접 지원하여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치는 해군, 공군과 달리 강제 징집되는 특성 때문에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이 더욱 심각하다. 군 조직은 개인 복지보다 조직문화의 가치가 우선되며(허재영, 2010), 연대책임을 강조하는 등의 특수성이 있다. 군은 계급과 직책에 따라 행동해야 하고, 규칙과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김완일, 2006; 양원영, 2014).

이와는 달리 현시대의 병사들은 개인적인 성장배경이 다르고, 다양한 성격 양상을 나타내며(김태현, 2013), 자기중심적 가치성향과 개인주의적 특성을 가진다(구승신, 2004). 병사들

이 가지는 개인주의적인 성격특성은 군의 특수성과 군이 요구하는 기대에 맞지 않아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핵가족 환경에서 성장한 인원들은 이탈을 허용하지 않는 통제된 집단생활이(정병삼, 2004) 익숙하지 않다. 결국 군에 입대한 신세대 병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군 생활에 적응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업이 된다.

병사들이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근무지 이탈, 군내 자살로도 이어지며(육군본부, 2008), 구타 및 가혹행위 등의 비행문제로 인해(심우섭, 2008) 끔찍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2013년 12월에 군에 입대하여 자대배치를 받은 이후, 한 달여 가량 여러 명의 선임 병사들로부터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른 사건, 2014년 6월에 발생한 GOP 총기난사 사건 등이 관련 사례이다. 군대는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을 더욱 가까이에서 지도하고 관리하는 부사관의 리더십 역량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부사관은 병사들을 돌보며, 자원을 제공해줄 수 있는 어머니이자, 솔선수범하고, 병사들을 지도하고 훈육하며, 모델링 할 수 있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더 이상 부사관의 도움 없이 지휘관이나 장교 몇 명에 의존해서 부대의 성공적인 임무완수, 변화와 발전을 이끄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손익준, 2007). 부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되면 병사들의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이선주, 2006).

육군 부사관은 관련분야의 전문가이자 자신

보다 계급이 낮은 부사관 및 병사들의 멘토로서 군 조직의 변화와 발전에 있어서 능동성과 자율성 및 책무성이 강조된 역할을 해야 한다. 부사관들은 급속히 변화하는 군 조직에서 관리자(manager)로서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소극적 역할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리더(leader)로서의 역할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이처럼 리더로서 부사관의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만큼 부사관의 리더십 연구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부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사관의 리더십 역량을 파악하여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는 드물다.

군 리더십은 일반 사회에서의 리더십과 구별된다(손익준, 2007). 군인들은 민간인에 비해 복종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국가 안보를 위해 개인적인 희생을 감내한다(김영일, 2009). Yukl(1998a)은 리더십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군 조직과 산업 조직 간 리더십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병순(2009)은 군 조직 연구에서 나타나는 리더십 역량 특성 요인들은 용기와 대담성, 책임감, 리더십 유효성과 성취 그리고 윤리적 행동과 성실성 등인 반면, 기업에서는 행정기술, 체력, 의사소통기술 등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군은 리더십의 중요성이 그 어느 조직보다도 높다고 할 수 있다. 부대단위의 작전이 임무완수에 있어 필수적이며, 사기, 단결력 등과 같은 공동 가치가 강조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군 리더십 연구는 어떤 리더가 효과적인 리더인가를 알아내기 위해 1950년대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김영춘, 백유성, 2011). 미 육군에서는 리더의 구비요건을 “Be(가치)-Know(지적능력)-Do(행동역

량)”의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어떠한 가치를 견비해야 하는가(Be),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Know) 그리고 리더로서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Do)로 명확하고 간결하게 모형화하였다(Department of Army, 1999). 개정판에서는 “Be-Know”를 자질(Attributes)로 통합하여 “자질과 핵심역량(Core Competencies)”으로 분류체계를 수정한 모형을 제시하였다(Department of Army, 2006). 최근 군 리더십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은 조직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리더의 행동유형,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리더십 교육 현황, 변혁적·거래적 리더십이 조직몰입·직무만족 등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결과 군 조직의 리더들이 갖추어야 될 리더십 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군 리더십은 강군 육성, 전투력 강화 등을 근간으로 리더들이 강인함을 발휘하기를 기대한다. 국방이라는 뚜렷한 목표를 지니고 있는 군은 경쟁, 성취 등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성중심 조직의 문화적 특성이 있다. 이러한 군의 남성적 특성과 관련된 측면이 성역할이다. 성역할은 한 사회 문화 안에서 남성 혹은 여성에게 적절한 것으로 간주되고 기대되는 행동을 말한다(O'Neil, 1981a). 군 리더십 역량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특성요인들은 용기와 대담성, 책임감, 성취 등이다(최병순, 1988). 이러한 리더십 요인들의 특성은 사회가 남성에게 적합하다고 규정하는 남성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Bem, 1974)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도구성(Bem, 1974)은 많은 남성이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특성을 반영하므로 도구성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남성들의 상대적 열등감을 증가시킨다. 남성중심의 군 조직

에서는 임무의 특성상 리더에게 강력한 추진력과 통제력을 갖춘 리더십을 발휘하기를 기대하는 반면, 관계성과 공감 등 성역할의 여성적 측면은 억압하도록 요구한다. 군의 리더에 대한 이러한 요구는 사회가 남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과 유사하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성역할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를 수 없을 때,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는데(O'Neil, 1981b), 한 개인의 사회화 과정에서 지나친 성역할 내면화에 의해 자신 혹은 타인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주는 심리적 상태를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이라고 한다(Good et al., 1996; Good, Robertson, & O'Neil, 1995; 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따라서 성역할 갈등은 남녀 모두에게 경험될 수 있으나 지금까지는 주로 남성을 대상으로 척도가 개발되고 관련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신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자존감은 낮고(김지현, 최희철, 2004; Sharpe & Heppner, 1991), 우울은 높고(김지현, 최희철, 2004; 김지현, 최희철, 2007; Good & Mintz, 1990a), 친밀감은 낮음을(Sharpe & Heppner, 1991) 발견하였다. 타인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으로, 남성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남성 자신의 결혼만족은 물론 여성 배우자의 결혼만족이 낮았으며(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아내구타에 대한 허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심한 음주, 분노의 폭발, 공격 행동으로 결말 짓는 경향이 있다(Cochran & Rabinowitz, 2000; Kilmartin, 2007; Lynch & Kilmartin, 1999). 또한 내면화된 남성성은 공격적이고 인식되지

못하며, 통제되지 않는 분노와 연관되어 있다(Kopper & Epperson, 1996). 남성의 성역할 갈등에 관한 연구는 내면화된 전통적인 남성성과 개인의 적응 간에 중요한 연결 고리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남성의 행동과 심리적 부적응을 예측하는 데 유용하다(Good, Robertson, & O'Neil, 1995).

사회가 남성에게 부여하는 어떤 역할은 소수만이 성취할 수 있는 것이며(Pleck, 1995), 군 간부들에 대한 과도한 성역할 기대 또한 모든 리더들이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간부들은 성역할의 긍정적 측면인 도구성과 관련 있는 리더십 역량의 특성들을 만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간부들은 리더로서의 실패와 남성으로서의 실패를 동시에 경험하게 된다. 사회가 부여하는 역할을 비판 없이 수용하여 자신의 성취 준거로 삼았으나 현실적으로 그것에 도달할 수 없고, 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비난받을 때 자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김지현, 최희철, 2007). 성역할 갈등(gender role conflict)을 경험하는 간부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부하들에게 지나친 남성성을 요구하거나 병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리더십 실패로 이어진다.

군 생활 1년 미만의 병사들이 복무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 구성원들의 정서적 지지와 상·하간의 신뢰분위기를 촉진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공감의 부족이라고 밝힌 연구가 있다(김광률, 남상인, 김무영, 2010). 공감은 '타인의 경험과 감정을 정확하고 민감하게 이해하는 능력'으로 정의되는데(Rogers et al., 1967), Rogers(1980)는 타인의 변화와 학습을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수준 높은

공감이라고 제안하였다. 또한 공감의 경험이 공격성이나 반사회적 행동의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Eisenberg & Strayer, 1987)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일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경환(2005)은 상급자의 공감이 클수록 하급자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져 능력 발휘를 촉진시킨다고 하였으며, 구남웅(2002)의 연구에서는 직속상관에 대한 부하의 친밀도가 부하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들은 군에 입대하게 되면 군 입대 이전에 맺었던 관계는 단절되고 동료병사나 간부와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발달심리학적으로 보면 병사들은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이므로(Erikson, 1959) 안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한 긍정적 정서경험은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김효영, 1999; 권승미, 2003).

남성들은 성장과정에서 공격성, 독립성, 적극성 등의 남성적 특성을 내면화하는 반면, 감정표현과 공감 등 여성적 태도와 행동은 피하도록 사회화된다(O'Neil, Helms, Gable, David, & Wrightsman, 1986). 이는 남성들이 여성들에 비해 공감을 잘 하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 많은 연구들에서 낮은 타인 공감은 높은 수준의 남성 성역할 갈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경, 2000;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les, 1996; Pollack & Levant, 1995; O'Neil, Good, & Holms, 1995, Sharp, Heppner, & Dixon, 1995). 현대사회에서 기대되는 효과적인 리더십은 높은 비전을 바탕으로 리더와 구성원이 연결되며, 구성원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며, 완전한 인격체로서 관리하여 구성원들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동기화시키는 것이다. 병사

들은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장교에 비해 직접적으로 접촉할 기회가 많은 부사관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보고하게 된다. 소부대 지휘자로서 최일선에서 병사들과 소통하는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한다면 병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기 힘들 것이며, 현대사회에서 기대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없어 결국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부사관을 비롯하여 군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는 간부들은 성역할 갈등을 극복할 때 조직에서 기대하는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다. 육군 부사관들이 성역할 갈등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고, 리더십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훈련한다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이현주, 2012).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측정하고,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매개변인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모형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성역할 갈등은 생애 초기에 내면화된 안정적인 심리적 변인이므로 제한된 시간 안에서 개입을 통해 변화하기 어렵다. 또한 성역할 갈등은 개인의 부정적 측면인 데 반해 리더십 역량은 긍정적 측면이기 때문에 상담장면에서 단기 접근이라면 내담자의 저항이 적고 역량 강화 훈련을 통해 발달 가능한 긍정적 요소인 리더십 역량에 대해 개입함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매개변인을 확인하여 타인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가 밝혀진다면 매개변인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성역할 갈등이 매개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여 종속변인에 미치는 간접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부

사관 리더십 역량이 향상되어도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궁극적으로는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들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변화를 촉진하여 리더십 역량을 높이고, 병사들의 안정적인 군 생활을 도와야 할 것이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함으로써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도모하고 군의 중요 목표인 국가 방위에 기여하는 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수도권 부대에서 근무하는 육군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해당 부대의 인사담당자가 부사관 한 명당 분대원 한 명을 무작위로 선출하였으며, 각각 분리된 공간에서 설문을 실시하였다. 부사관 299명, 병사 299명의 1:1 대응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는 간부용(부사관)과 병사용으로 나뉜다. 간부용은 성역할 갈등을 묻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병사용은 해당 부사관의 지휘를 받는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와 병사 자신의 군 생활 적응에 해당하는 설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사관의 인구학적 특성은 하사 112명(37.5%), 중사 185명(61.9%), 상사 2명(0.7%)이었으며, 평균 복무 개월 수는 62.5개월이었다. 나이는 만 21세~39세까지 분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이 170명(56.9%)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고, 전문대

졸이 111명(37.1%)으로 고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병사의 인구학적 특성은 이등병 4명(1.3%), 일병 88명(29.4%), 상병 157명(52.5%), 병장 50명(16.7%)이었으며, 평균 복무 개월 수는 13.4개월이었다. 나이는 만 19세 이상으로, 만 21~22세에 해당하는 병사가 235명(78.6%)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나타냈다. 학력은 고졸이 103명(34.5%)이었으며, 대학재학이 186명(62.2%)으로 가장 많았다. 연구 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표 1과 표 2에 각각 제시하였다.

표 1. 부사관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계급	하사	112	37.5
	중사	185	61.9
	상사	2	0.7
	합계	299	100
복무기간	2년 미만	58	19.4
	2년 이상~4년 미만	55	18.4
	4년 이상~6년 미만	80	26.7
	6년 이상	106	35.5
	합계	299	100
나이(만)	21~25세	149	49.8
	26~30세	109	36.5
	31~35세	36	12.0
	36세 이상	5	1.7
	합계	299	100
학력	고졸	170	56.9
	전문대졸	111	37.1
	대졸	18	6.0
	합계	299	100

주. N=299.

표 2. 병사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	구분	빈도	비율(%)
계급	이등병	4	1.3
	일병	88	29.4
	상병	157	52.5
	병장	50	16.7
	합계	299	100
복무기간	4개월 미만	4	1.3
	4개월 이상~11개월 미만	78	26.1
	11개월 이상~18개월 미만	147	49.2
	18개월 이상	70	23.4
	합계	299	100
	나이(만)	19~20세	42
21~22세		235	78.6
23~24세		18	6.0
25세 이상		4	1.3
합계		299	100
학력	고졸	103	34.5
	전문대졸	10	3.3
	대학재학	186	62.2
합계	299	100	

주. N=299.

측정 도구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을 측정하였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는 37문항으로 구성되었으나,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자 축약형이 개발되었다(이수연, 김인순, 김지

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축약형의 수렴타당도를 측정하기 위해 한국형 성평등의식 검사와 한국형 다면성별의식 조사의 하위척도인 적대적 성차별의식 척도를 사용하였다. 한국형 성평등의식 검사와의 상관($r=.505, p=.000$), 적대적 성차별의식 척도와의 상관($r=.411, p<.01$)은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축약형은 6개 요인별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하위요인은 ‘성공·권력·경쟁, 남성우월, 가장의무감, 일·가정 양립 갈등, 감정표현 억제,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로 구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문항은 ‘다른 남자들보다 더 똑똑하고 힘센 것이 나에게 중요하다’, ‘나보다 더 성공적인 여성과 같이 지내는 것은 불편하다’,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일이나 공부에 대한 성취 욕구로 과로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힘들다’, ‘나는 섬세한 감정을 잘 표현하지 못한다’, ‘다른 남성들과 너무 친밀해지는 것은 나를 불편하게 만든다’ 등이다.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이수연 등(2012)의 연구에서 .90이었으며, 축약형 전체 문항의 α 는 .80이었다. 6개 하위요인별 α 는 .78에서 .88로 나타났다.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

김정현과 김지현(2017)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를 사용하였다. 병사의 평정에 의해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측정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4요인 23문항으로 관계기술(10문항), 주특기전문성(4문항), 충성심(4문항), 상황대처능력(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Likert 5점 척도로 측정되며,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더십 역량

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주도성, 군 생활 만족 척도와 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병사들이 평가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과 병사들이 평가한 부사관의 주도성 간 상관($r=.738, p<.01$), 병사들의 군 생활 만족과의 상관($r=.571, p<.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된 척도의 준거타당도가 검증되었다. ‘군인으로서 임무를 정성을 다해 수행하여 국가에 충성 한다’, ‘전투장비 조작, 운용, 관리 능력을 구비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식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타인이 어려움을 호소할 때 그 순간 상대방의 감정을 함께 느낄 수 있는 공감능력이 있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다. 각 요인별 α 는 .76에서 .94였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김옥란과 김원일(2014)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를 사용하여 병사에게 설문하였다. 하위요인은 군 생활 가치(7문항), 애인관계(5문항), 심신건강(7문항), 업무능력(5문항), 선임관계(4문항), 동료관계(4문항) 등의 6요인 3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는 각 문항이 자신의 군 생활에 대한 적응상태를 얼마나 잘 묘사하고 있는지를,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의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준거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군 생활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탄력성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군 생활 스트레스($r=.79, p<.01$)와는 부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나타내며, 사회적 지지($r=.65, p<.01$), 자아탄력성($r=.66, p<.01$)과는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군

생활은 나에게 자신감을 심어준다’, ‘애인이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생각이 들면 탈영하고 싶다’,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걱정이 된다’, ‘동료들은 나를 좋아 한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문항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4였다. 6개 하위요인별 α 는 .77에서 .89로 나타났다.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SPSS 21.0을 사용하여 각 변인의 기술통계치와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Mplus* 7.0(Muthén & Muthén, 2012)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분석 및 모수 추정하였다. 최대우도(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 방식으로 모수를 추정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χ^2 통계치와 CFI, TLI, RMSEA, SRMR 등을 보고하였다. CFI(.90이상), TLI(.90이상), RMSEA(.10이하), SRMR(.10이하)을 중심으로 평가하였다(홍세희, 2000).

결 과

기술통계 및 상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인들의 기술통계치와 상관분석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육군 부사관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이 병사가 지각한 군 생활 적응($r=-.416, p<.01$), 병사의 평정에 의해 측정된 부사관 리더십 역량($r=-.180, p<.01$)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표 3.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계수

변인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성역할 갈등	-		
리더십 역량	-.180**	-	
군 생활 적응	-.416**	.501**	-
M	2.69	4.45	4.17
SD	0.90	0.54	0.59
왜도	0.926	-0.962	-0.751
첨도	0.725	0.414	-0.026

주. N=299. ** $p < .01$.

타났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은 부사관 리더십 역량($r = .501,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있어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부정적 영향을, 부사관 리더십 역량은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부사관 리더십 역량 간 효과의 크기는 크지 않지만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부사관 리더십 역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확인되었다.

측정 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 분석결과, $\chi^2 = 290.04$

표 4. 측정모형 분석결과

요인	요인부하량(표준화계수)	표준오차	p	
성역할 갈등	성공 · 권력 · 경쟁	1.00(0.393)	-	-
	남성우월	1.78(0.764)	.27	.000
	가장의무감	0.49(0.171)	.19	.009
	일 · 가정 양립 갈등	1.98(0.771)	.31	.000
	감정표현 억제	2.02(0.778)	.31	.000
남성과의 애정행동 억제	2.08(0.892)	.32	.000	
리더십 역량	관계기술	1.00(0.819)	-	-
	주특기전문성	0.89(0.762)	.06	.000
	충성심	1.17(0.902)	.07	.000
	상황대처능력	0.97(0.840)	.06	.000
군 생활 적응	군 생활 가치	1.00(0.510)	-	-
	애인관계	2.04(0.719)	.25	.000
	심신건강	2.28(0.880)	.26	.000
	업무능력	1.63(0.838)	.18	.000
	선임관계	1.62(0.708)	.19	.000
	동료관계	1.18(0.572)	.16	.000

주. N=299.

표 5. 요인 간 분산-공분산(상관)

요인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성역할 갈등	.268(1.00)		
리더십 역량	-.057(-.217)	.259(1.00)	
군 생활 적응	-.099(-.557)	.089(.512)	.117(1.00)

($p < .000$), CFI=.924, TLI=.910, RMSEA=.079로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얻었으며, 추정된 부하량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성역할 갈등의 경우, ‘가장의무감’의 요인부하량이 0.494로 낮게 나타났다. 해당요인의 문항을 살펴보면, ‘나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나는 가족을 위해 희생해야 한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실시대상의 나이는 만 21~25세의 비율이 49.8%, 만 26~30세의 비율이 36.5%를 차지했다. 이는 평균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구대상 중 미혼의 비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어 가족에 대한 책임과 희생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가장의무감’이 모든 대

상에 공통된 의미로 작용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구조 모형 검증

모형 적합도는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할 만한 적합도를 얻었다. 병사의 평정에 의해 측정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부사관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과 병사가 지각한 군 생활 적응을 매개하고,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직접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 모형은 간접효과도 있지만 직접효과도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통제되었다 하더라도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의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나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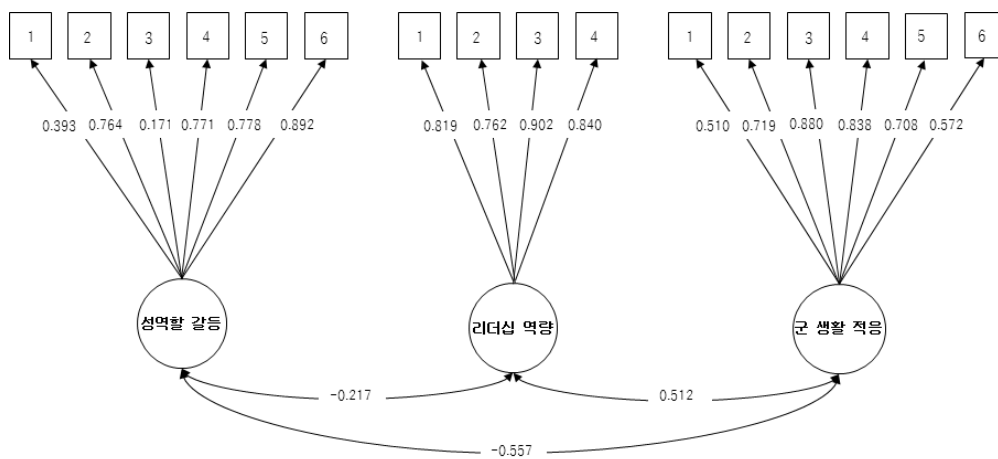


그림 1. 측정모형 분석결과

표 6.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

적합도	χ^2	df	p	CFI	TLI	SRMR	RMSEA (90% 신뢰구간)
구조모형	290.04	101	.000	.924	.910	.062	.079 (.069, .090)

표 7. 경로계수

경로	표준화계수(표준오차)	비표준화계수(표준오차)
성역할 갈등-> 군 생활 적응	-.468**(.049)	.309**(.064)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217**(.062)	.213**(.047)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411**(.050)	.276**(.047)

주.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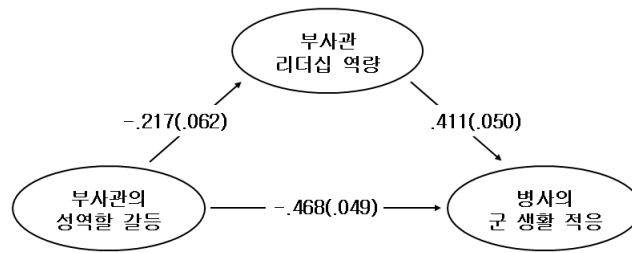


그림 2. 구조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연구모형 속 각 변인들의 관계에 대한 표준화 계수는 표 7에 제시되었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 리더십 역량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결과를 요약해보면,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부

사관 자신의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의 결과를 살펴보면,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매개로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에 대해 sobel test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

표 8. 매개효과 검증

독립변인	매개변인	종속변인	간접효과 (비표준화)	표준오차	p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
성역할 갈등	리더십 역량	군 생활 적응	-.059	.021	.005	-.100, -.017

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beta=-.089, p=.001$), 효과의 크기 측면에서 군 생활 적응에 대한 R^2 값은 .471로,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분산의 47.1%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육군 부사관과 병사가 1:1 대응되도록 실시하였으며, 각 299명이 본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부사관 자신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사관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수준은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남성이 타인보다 앞서고 최고가 되기 위해 일과 학업을 추구하지만, 문제는 조직에 '최고의 위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소수의 남성들만 그 꿈을 이룰 수 있다(Gysbers, Heppner, & Johnston, 2003). 남성들이 조직에서 경쟁과 비교를 통해 최고가 되기 위한 일에 집착한다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남성의 심리적 고통을 증가시킨다(Blazina, Pisecco, & O'Neil, 2005). O'Neil(2008)에 의하면 성역할 갈등을 겪는 남성은 애착, 친밀감, 감정의 노출, 우정 등 관계형성에 있어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하였으며, Ryan과 Deci(2000)도 이 상태의 남성은 관계성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하였다. 김중섭(1985)의

연구에서는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관련된 요인으로 인간관계, 의사소통을 제시하였다. 이종호(1996)는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정서적 환경 만족도가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음을 발견하였으며, 군 생활 내에서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적응을 촉진시킨다고 하였는데, 병사의 정서적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대상이 바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 있는 부사관이다. 부사관은 병사들과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병사들의 군 생활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고 돌보며, 적응을 돕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성공과 경쟁을 지향하는 남성의 경우, 성역할 갈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여성적 특성 및 여성 성역할과 유사한 관계성을 촉진하기 어렵게 된다. 즉, 부사관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을 감소시킨다면 병사와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형성이 가능해지고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둘째, 육군 부사관 자신이 지각한 성역할 갈등은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과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높을수록 리더십 역량 수준이 낮아서 리더십 발휘의 대상이 되는 병사들을 잘 지휘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O'Neil et al.(1986)에 의해 제시된 성공·권력·경쟁, 감정억제, 남성 간 애정억제, 일·가족 간 갈등의 하위요인 중 특히 리더로서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요인은 '감정억제'이다. 감정억제란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는 데 어려움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O'Neil, 1981b). Wisch와 Mahalik(1999)은 감정억제가 높은 남성은 타인과 피상적인 관계를 형성한다고 하였으며, Hayes와 Wheelwright(1984)는 감정억제가 높은 남성은

공감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는 높은 감정억제를 보이는 부사관의 경우, 공감능력 발달에 혼란을 경험하고, 병사들과 감정이나 생각을 나누지 못하는 등 소통하지 못하게 되어 리더십을 잘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대원들에 대해 좋은 생각이 들어도 정서표현을 하지 못하며, 남성중심의 군 조직에서 자신의 높은 남성성을 보이고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병사들에게 오히려 엄격할 가능성이 있다. 정민선(2012)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이 실패감을 극복하기 위해 타인에게 과장된 전문성과 권위를 유지하려 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의 경우, 감정억제로 인해 대인관계가 빈약해질 수 있으며, 스스로 리더십 유능감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되고, 이는 리더십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병사가 지각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은 병사의 군 생활 적응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 또한 높아지는 것을 의미하며,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간부의 리더십 자질과 관계형성이 영향을 미친다는(구남웅, 2002; 원제윤, 2004; 황용주, 2001; 권승미, 2003; 김혜정, 2007) 선행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부사관들의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고 발전시킨다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도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 안녕의 감소(예, 낮은 자존감, 높은 우울)와 상관이 있으며(O'Neil, 2008), 친밀감이 부족하고 친밀한 자기노출이 적다(Sharpe et al., 1995)는 것을 나타낸다. 관계지향적 리더는 병사의 스트레스와 부적상관을 보였으며,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정적 상관을 미친다는 이선주(2006)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은 부사관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미치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높을수록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이 높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는 변량만큼이나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향상되어도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스러움’을 강조하는 군 조직에서 부사관들은 성공욕구 등 성역할 갈등의 요소들을 더욱 많이 경험할 수 있다.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부사관 개인이 자신의 당위적 사고를 보다 유연하게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상담 장면에서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의 핵심신념을 탐색하는 인지적 접근이 유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부사관들의 적극적인 인지적 노력이 요구되는 한편, 성역할 갈등은 생애초기에 내면화되어 변화시키기 어려운 심리적 변인이기 때문에 부사관 선발 시 성역할 갈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병사들과 가까이에서 접촉하면서 지휘하는 역할을 하는 부사관들의 성역할 갈등을 확인하여 임무부여를 해야 할 것이다. 높은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부사관의 경우, 병사들의 군 생활을 지도하고 적응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전담으로 하는 병력관리 임무보다는 기술직 등 전문적인 분야에 배치하여 성취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편이 유용할 것이다. 연구의 결과는 육군 병사들의 군 생활 적

응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고, 부사관들이 성역할 갈등을 잘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의의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매개하는지를 밝힌 최초의 시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관계에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긍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확인하여 육군 부사관 리더십의 중요성과 리더십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둘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부사관의 내적인 속성이 리더십 역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경험적으로 검증되었다. 이는 육군 부사관의 리더십을 개발하고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려면 부사관의 내적인 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을 높이는 유의미한 요인임을 나타내는 연구의 결과를 통하여 중요한 증거가 만족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하게 되면 병사들의 군 복무 부적응으로 인한 군내 사고를 예방하고, 병사들의 심리적 건강과 군 생활 적응을 높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육군 부사관들의 지휘를 받는 병사들의 경우 군 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밝힌 데 의의가 있다. 성역할 갈등이 타인의 적응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의 결과들은 대부분 일치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들은 자신이 부정적으로 느끼는 감정을 분노의 폭발, 공격

행동으로 결말짓는 경향이 있다(Cochran & Rabinowitz, 2000; Kilmartin, 2007; Lynch & Kilmartin, 1999). 이러한 결과는 부사관이 경험하는 성역할 갈등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성역할 갈등이 높은 육군 부사관이 병사들을 지휘할 때, 매개효과가 검증된 부사관 리더십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사관이 응답한 자신의 성역할 갈등과 부사관의 지휘를 받는 병사가 응답한 부사관 리더십 역량 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정민선(2012)의 연구에서 남성 상담자의 감정억제가 높을수록 공감능력은 떨어졌으며, 상담자의 높은 공감은 내담자의 상담만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자는 남성 성역할 갈등의 하위요인인 감정억제에 대해 스스로 낮다고 보고하였으나 내담자의 상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었다. 또 다른 연구에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은 여성배우자의 결혼만족을 유의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이처럼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남성이 스스로 평가한 성역할 갈등에 비해 타인이 평가한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심리적 건강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며,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살펴볼 때, 사회에서는 남성 성역할의 부정적 측면인 성역할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응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성역할 갈등 척도는 성공·권력·경쟁추구, 감정억제 등 일반적으로 성역할의 부정적인 측면을 측정하고 있지만 군에서 기대하고 요구되는 특성과 맥을 같이 한다. 군의 이러한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는 부사관들에게 남성다운

모습, 강한 군인의 우월성을 내면화하도록 하여 성역할 갈등 척도의 하위요인에 대해 바람직한 속성으로 여겨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남성중심 조직인 군의 전통적인 사고방식과 특성으로 이해할 수 있어 흥미롭다.

본 연구에서는 부사관이 스스로 평정한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 간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갈등을 경험하는 남성은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O'Neil, 1982; Pleck, 1981) 선행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처럼 군의 남성중심 문화적 특성이 사회에 비해 성역할 갈등의 요소들을 더욱 잘 수용하고 내면화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군인을 대상으로 성역할 갈등을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사회에 비해 솔직한 응답을 통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군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역할 갈등과 다른 측면의 추후 연구를 통하여 일관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본 연구결과를 통해 성역할 갈등이 높은 육군 부사관의 경우, 리더십 역량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계급과 권력, 목표중심의 군 조직에서는 치열한 경쟁을 통해 승리와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군의 남성 중심적인 사고와 문화는 강한 남성성을 요구하는데, 육군 부사관들은 군에서 기대하는 성역할을 따르지 않았거나 따를 수 없을 때, 긴장과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다(O'Neil, 1981b). 성역할 갈등이 심할수록 대인간 심리적 행복(예, 친밀감)이 낮다(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김지현, 최희철, 2007; O'Neil, 2008)고 하였으며, 높은 수준의 남성 성역할 갈등은 낮은 타인 공

감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은경, 2000; Good, Robertson, Fitzgerald, Stevens, & Bartles, 1996; Levant, 1997; Pollack, 1995; O'Neil, Good, & Holms, 1995, Sharp, Heppner, & Dixon, 1995). 이러한 결과는 육군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경험할 경우, 병사들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한계를 느낄 수 있으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하위요인인 관계기술 형성이 어려워져 리더십 실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병사들이 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부대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는 조직적 특성으로 인해 군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 적응과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현재 한국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개성과 자유분방한 생활을 중요시하며, 다양한 성격양상을 나타낸다. 특히 육군의 경우, 강제 징집되는 특성으로 인해 군 생활 적응의 어려움은 더욱 심각하다. 병사들이 호소하는 심리적 어려움은 군 전체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방위를 위한 전투준비 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사관은 이처럼 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사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돕기 때문에 장교에 비해 병사들과 더욱 밀접하게 소통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리더십 역량이 반드시 요구된다. 부사관이 리더십 역량을 강화하여 병사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소통, 공감하게 된다면 보다 건강하고 강한 대한민국 군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부사관이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성역할 갈등 수준을 인식하여 해결하고, 심리적 건강을 유지하는 일이 필요하다. 즉,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것은 자신의 성장뿐만 아니라 병사와의 관계형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므로 부

사관의 심리적 건강에 관심을 갖고, 부사관이 리더십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간부의 성역할 갈등과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특히 육군 부사관을 대상으로 한 리더십 연구가 부족하여 부사관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매개효과를 보이는지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도출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무 입대한 육군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부사관들이 성역할 갈등을 인식하고 극복하여 리더십을 잘 발휘하도록 돕는다면 병사의 군 생활 만족과 심리적 적응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고, 병사의 군 생활 적응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부사관이 성역할 갈등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하며, 부사관 선발 및 보직부여 시, 부사관들의 성역할 갈등을 확인하는 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육군 부사관의 성역할 갈등과 리더십 역량이 병사의 군 생활 적응에 유의미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한 점에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광률, 남상인, 김무영 (2010). 상사의 공감수준과 부하의 복무적응간의 관계 연구. 상담학연구, 11(4), 1537-1549.
- 구남웅 (2002). 직속상관의 리더십이 조직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구승신 (2004). 신세대 병사의 군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승미 (2003). 병사들의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정서적 상태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일 (2009). 학군장교 리더십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춘, 백유성 (2011). 전략적 리더십 구성요인 탐색: 군 고급제대를 중심으로. 한국인적자원관리학회, 18(3), 219-241.
- 김옥란, 김완일 (2014). 군 병사의 군 생활 적응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상담학연구, 15(4), 1627-1646.
- 김완일 (2006). 군 상담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정현, 김지현 (2017). 육군 부사관 리더십 역량 척도 개발. 상담학연구, 18(6), 645-664.
- 김중섭 (1985). 사기의 효과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군사평론, 235, 육군대학.
- 김지현, 최희철 (2004). 남성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2004년 한국특수교육학회 추계 학술대회, 13-23.
- 김지현, 최희철 (2007). 남자 청소년의 성역할과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도구성과 성역할 갈등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김지현, 황옥경, 최희철 (2005). 중년 남성의 성역할, 성역할 갈등과 부부의 결혼만족. 상담학연구, 6(2), 621-632.
- 김태현, 이정원, 임익순 (2013). 군상담 프로그램. 서울: 교문사.
- 김혜정 (2007). 병사들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임파워먼트 및 군 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효영 (1999). 군생활 스트레스와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전·의경대원을 대상으로. 연세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경환 (2005). 상급자의 공감, 직면 그리고 공격이 하급자의 자아존중감과 능력활용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 18(3), 1391-1412.
- 서은경 (2000). 남성의 성역할 갈등이 주관적 삶의 질과 정신병리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손익준 (2007). 해군 부사관의 리더십 핵심역량 진단도구 개발 및 적용.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우섭 (2008). 개인상담시 타로카드가 신세대 장병의 우울 및 불안정서와 상담회기의 효율성에 미치는 효과.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원영 (2014). 군 관심사병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집단미술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서울불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원제윤 (2004). 초급지휘관 리더십이 신세대 병사들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육군본부 (2008). 2007년도 사고예방 활동 지침. 육군본부.
- 육군부사관학교 (2015). 육군부사관학교 부사관 교육 과정. 전북: 육군부사관학교.
- 육군사관학교 (2013). 군사 리더십: 이론, 적용 그리고 새로운 전망. 제 17회 화랑대 국제심포지엄. 9월 30일. 서울: 육군사관학교. 미간행
- 이미정, 변화순, 김은정 (2009). 청년층 섹슈얼리티와 친밀한 관계에서의 성폭력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 1-248.
- 이선주 (2006). 사병의 개인적 특성과 지휘관의 리더십이 사병의 군 생활 스트레스와 적응에 미치는 영향.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수연, 김인순, 김지현, 김진아 (2012). 한국형 남성 성역할 갈등 검사 개발 및 타당화. *여성연구*, 82(1), 5-33.
- 이종호 (1996). 군 조직에서의 신입원의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
- 이현주 (2012). 군장병의 자아탄력성과 부대 적응도의 관계: 정서지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민선 (2012). 남성상담자의 감정억제와 공감, 내담자의 작업동맹, 상담만족과의 관계.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정병삼 (2004). 육군병사들이 지각한 분노유발요인과 그들의 비합리적 신념이 분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용 (2001). 군 간부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 수도권 일원 육군 중견간부를 대상으로.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병순 (1989). 상이한 상황하에서 효과적인 지휘행동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병순 (2008). 핵심역량 기반 리더십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방안. *숙명리더십연구*, 7, 189-217.
- 최병순 (2009). 군 지휘관의 리더십 역량에 관한 연구: 한국형 리더십 역량모형을 중심으로. *국방연구*, 52(2), 99-125.
- 하정혜, 김지현 (2016). 중년여성 한부모의 성역할갈등과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삶의 의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8(4), 1023-1046.
- 허재영 (2010). 군 조직에 부적응한 병사들을 위한 복지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조선*

-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홍세희 (2000). 구조방적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 161-177.
- 황용주 (2001). 신세대 병영생활에 부합된 효율적인 리더십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m, S. L. (1974). The measurement of psychological androgyny. *Journal of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155-162.
- Blazina, C. Pisecco, S., & O'Neil, J. M. (2005). An adaptation of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for Adolescents: Psychometric issues and correlates with *psychological distress*. *psychology of Men and Masculinity*, 6, 39-45.
- Cochran, S. V., & Rabinowitz, F. E. (2000). *Practical resources for the mental health professional. Men and depression: Clin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s*. San Diego, CA, US: Academic Press.
- Department of the Army (1999). *Army Leadership*.
- Department of the Army (2006). *Army Leadership: FM 22-100*, Department of the Army.
- Eisenberg, N., & Strayer, J. (1987). *Critical issues in the study of empathy*. In N. Eisenberg & J. Strayer (Eds.), *Cambridge studies in social and emotional development. Empathy and its development* (pp. 3-13).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Psychological Issues*, 2, 1-86.
- Gysbers, N. C., Heppner, M. J., & Johnston, J. A. (2003). *Career counseling: Process, issues, and techniques*. Allyn & Bacon.
- Good, G., & Mintz, L. B. (1990a).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69, 17-21.
- Good, G., & Mintz, L. B. (1990b). Gender role conflict and depression in college men: Evidence for compound risk.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70-75.
- Good, G. E., Robertson, J. M., & O'Neil, J. M. (1995). Male Gender role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43(1), 3-10.
- Good, G. E., Robertson, J. M., Fitzgerald, L. F., Stevens, M., & Bartles, K. M. (1996). The relation between masculine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distress in male university counseling center client.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5, 44-49.
- Hayes, R. H., & Wheelwright, S. C. (1984). *Restoring our competitive edge: competing through manufacturing*. New York, NY: John Wiley & Sons.
- Kilmartin (2007). *The masculine self(3rd ed.)*. New York: Sloan Publishing.
- Kopper, B. A., & Epperson, D. L. (1996). The experience and expression of anger: Relationships with gender, gender role socialization, depression, and mental health functioning.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logy*, 43(2), 158-165.
- Levant, R. F. (1997). *The masculinity crisis*. *The Journal of Men's Studies*, 5(3), 221-231.
- Lynch J. & Kilmartin C. (1999). *The pain behind the mask*. The Haworth Press; Binghamton, NY.
- Muthén, L. K., & Muthén, B. O. (2012). *Mplus statistical analysis with latent variable user's*

- guide*. 7th Edition. Los Angeles, CA: Muthén & Muthén.
- O'Neil, J. M. (1981a). Male sex-role conflicts, sexism, and masculinity: Psychological implications for men, women, and the counseling psychologist. *counseling psychologist*, 9(2), 61-81.
- O'Neil, J. M. (1981b). Patterns of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Sexism and fear of femininity in men's lives.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60, 203-210.
- O'Neil, J. M. (1982). Gender role conflict and strain in men's lives: Implications for psychiatrists, psychologist, and other human service providers. In K. Solomon & N. Levy(Eds), *Men in transition: Theory and therapy* (pp. 5-40). New York: Plenum Press.
- O'Neil, J. M., Hemls, B., Gable, R., David, L., & Wrightsman, L. (1986). Gender Role Conflict Scale: College men's fear of femininity. *Sex Roles*, 14, 335-350.
- O'Neil, J. M., Good, G. E., & Holmes, S. (1995). Fifteen years of theory and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New paradigms for empirical research. In Ronald F. Levant & Williams S. Pollack(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62-206). New York: Basic Books.
- O'Neil, J. M. (2008). Summarizing 25 year of research on men's gender role conflict using the gender role conflict scale: New research paradimes and clinical implications. *The Counseling Psycholologist*, 36, 358-445.
- Pleck, J. H. (1981). *The myth of masculinity*. Cambridge, MA: MIT Press.
- Pleck, J. H. (1995). The gender role strain paradigm: An update. In R. R. Levant & W. S. Pollack(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11-32). New York: BasicBooks.
- Pollack, W. S. (1995). No man is an island: *Toward a new psychoanalytic psychology of men*. In R. F. Levant & W. S. Pollack (Eds.), *A new psychology of men* (pp. 33-67). New York, NY, US: Basic Books.
- Rogers, C. R., et al. (Eds.). (1967). *The therapeutic relationship and its impact: A study of psychotherapy with schizophrenics*. Oxford, England: U. Wisconsin Press.
- Rogers, C. R. (1980). Growing old-or older and growing. *Journal of humanistic psychology*, 20(4).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logist*. 55, 68-78.
- Sharpe, M. J., & Heppner, P. P. (1991). Gender role, gender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e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 323-330.
- Sharpe, M. J., & Heppner, P. P., & Dixon, W. A. (1995). Gender role conflict, instrumentality, expressiveness, and well-being in adult men. *Sex Roles*, 33(1 & 2), 1-18.
- Wisch, A. F., & Mahalik, J. R. (1999). Male therapists'clinical bias: Influence of client gender roles and therapists gender role conflic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6, 51-60.
- Yukl, G. (1998a). Managerial leadership: A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Yearly Review of Mangement*, 15, 251-189.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Yukl, G. (1998b). *Leadership in organizations*. 4th ed., Prentice-Hall.

원 고 접 수 일 : 2018. 10. 23

수정원고접수일 : 2019. 01. 15

게 재 결 정 일 : 2019. 02. 22

The Mediating Effect of Army Officer Leadership Competenc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 and Soldier Adjustment

Jung-Hyun Kim

Ji-Hyeon Kim

Jun-Yeop Kim

Hongi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leadership competencies among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role conflicts and the adjustment to the army environment of soldiers under their command. Data from individual meeting with 299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and 299 soldiers were examined, utilizing goodness-of-fit of correlation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o analyze the data. Result indicated that gender role conflicts of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significantly predicted adjustment of soldiers to the army environment. Specially, noncommissioned officers with a high degree of leadership competencies had a positive effects on soldiers' adjustment. Additionally, gender role conflicts on the part of noncommissioned officers had a negative effects on soldiers' adjustment. This suggests that the negative effects of gender role conflicts might be reduced by enhancing the leadership competencies of army noncommissioned officers.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n this study are discussed.

Key words : Army noncommissioned officer, Leadership competency, Gender role conflicts, Adjustment of soldiers to the army environment